

## Bruce Waltke 박사, 시편, 강의 20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0, 신성한 장소, 계절, 물건 및 인사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트에서 시편 기자가 믿음의 사다리를 내려가는 세 단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걸어가는 일곱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상징을 본다고 가정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의 첫 번째 하강은 3절에서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았다고 말한 때입니다. 즉, 그는 열쇠구멍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인생관을 시작했다. 그는 아마도 70~80년 정도 될 자신의 경험의 제한된 지평 내에서 볼 수 있는 것에 의해 현실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가리개를 씌운 말과 같으며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에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4절과 5절에서 보는 것은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는 그들이 경건치 아니하고 행실이 사악하며 비웃고 악의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불경건합니다. 그들의 입은 천국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혀는 땅을 차지합니다.

11절,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아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12절에서 자신의 문제를 요약합니다.

악인들은 항상 근심이 없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대조는 그가 언약을 지키는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근본적으로 로스 주교가 말했듯이, 그의 근본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정의하시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문제부터 시작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가 존재한다고 해도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며 단지 그의 다른 송고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을 규정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물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그가 시기할 때, 즉 그들의 번영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그가 그들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당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있어서 당황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공동체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4장 6절에서 4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6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방으로 압박을 받아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당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지만 시기하고 번영을 누리며 우리의 기대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가 거의 발판을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역에서 거의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곱 걸음을 주목하십시오. 15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악에게 상을 주시고 선에게 벌을 주신다는 자신의 인생철학을 가지고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온 양심은 거기로 갈 수 없었지만 그것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신은 선하지 않다.

그의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요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회를 결코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의 최종 운명을 이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 자비, 영생, 최종 승리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징들은 그에게 깊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성전에 살고, 그 진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 그 상징들은 우리가 악한 자들의 종말을 견디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악인의 최후의 운명.

그는 물질적인 것만 보면 자신이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감각하고 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잔인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언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나를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쇠구멍 신학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실제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모든 유혹을 통과하고 강철을 시험하고 최종 승리를 위해 그를 준비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 거절당하는 광야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면전에서 최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위기를 이겨내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그는 하늘에 나는 주 외에 누가 있고 땅에는 주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음을 발견 합니다.

즉, 나에게는 신이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왜 천국에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글썄요, 저는 부모님과 친척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 모든 사랑스러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갖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나는 녹슬고 퇴색하며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일시적인 부 위에 영원하고 숭고한 하나님을 맡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에 들어간 이유는 성전이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능에 관해 내가 말하고 싶은 다음 요점은 시편이 시편의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제의의 전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이다. 그것은 영원한 현실과 미래에 실제 또는 실체가 될 것을 묘사하기 위해 신성하게 의도된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즉, 여기 천국에는 영원한 실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영원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전을 묘사한 것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윤리적 의지가 있는 것의 사본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시적 수준에서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통시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천국의 예, 그림, 사본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더 큰 것의 유형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기타 등등은 하나님이 그의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성례전인 교회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성취되는 유형이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실재 그 자체에 올 때 여전히 완성이 있으며, 우리는 새로운 몸, 부활한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컬트의 기능입니다. 일종의 천국이다.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고 앞으로 다가올 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제안하는 것이 컬투스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실제로 영적인 말씀과 함께 이러한 육체적 현실을 통해 제사장이 빵을 먹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들어가는 성례전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용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이고 모범적이며 전형적인 것, 성례전적인 것에 더해 넷째로, 그것은 예술적이고 선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의미이며 건축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4살, 아마도 5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저를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계시는 삼촌을 방문하러 데려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대리석 건물, 고전 그리스 건축물이 권력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권위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50년, 6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은 정말로 내 존재 속으로 깊이 말해주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성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 교회의 영속성, 그 권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 시대의 대학들이 웅장한 건축물을 통해 교회를 세속 국가로 대체하려고 시도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워싱턴 대학교에 가서 그 도서관에 가면 꼭 대성당처럼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삼중 아치형의 오목한 출입구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습니다. 그 위에 조각상이 있는 벽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요한, 사도들의 동상 대신에 루소, 볼테르, 합리주의자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캠퍼스에 있을 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건축의 가치이다. 그것은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가 있는 이유는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노래는 말 외에 또 다른 차원의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시편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라크 아들들의 시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고상함 속에 아름다운, 온 땅의 기쁨이로다.

큰 왕의 성 시온 산은 사뫼의 높은 곳과 같으니라. 그건 그렇고, 이것 역시 우가릿 신화에 대한 암시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산은 사뫼 이었고 사뫼는 또한 북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바다가 서쪽을 의미하고 네게브가 남쪽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산은 북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던 북쪽 산이군요. 이스라엘에게는 시온이 있었고,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사뫼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Zaphon의 높이가 시온산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뫼는 대왕의 도시로도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채에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요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를 보고 놀라니라. 그들은 겁에 질려 시온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다가 흔들리고 그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스의 배처럼 멀하시고 동풍에 흩어짐 같이 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오 하나님, 당신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의 찬양도 땅 끝까지 이릅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온산은 기뻐합니다.

주의 판결로 인해 유다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그는 회중에게 시온을 두루 다니고  
그 곳을 돌며 그 망대 수를 세고 그 성벽을 잘 살펴보고 그 성채를 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시온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속성, 인내, 권위 및 힘을 말했던 이 건물들을 와서 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화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장소를 사원으로, 조각으로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기능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의 측면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 의해 시작된 측면과 성전과 함께 소개된  
측면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의의 양상은 모세의 천막에서 시작하여 왕궁으로 대체되었다. 모세  
시대에 그들이 소유한 곳은 성지였습니다. 천막이나 성막을 쳤던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한 곳이 어디라고 정해진 적은 없습니다. 신성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방주가 있었습니다.

텐트가 있었어요. 선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몸에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그의 흥패 안에는 우림 과 둠뭉이 들어 있었습니다 . 보리 수확과 관련하여 유월절이라는 신성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밀 수확과 관련하여 일어난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초막절이 있었는데, 이는 포도를 짜는 것과 올리브를 짜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성한 제사와 신성한 제물을 마련했지만 거의 말이 없습니다. 음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말은 당신이 첫 열매를 맺을 때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고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송배를 크게 확장합니다. 그는 그 위에 집을 짓고 David는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그것을 오페라로 변형시킨다. 그는 성전 준비를 제공합니다. 그는 시편의 대본과 음악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의식에 수반되는 David는 나에게 모차르트와 같습니다. 게다가 그는 르네상스맨이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예배를 취하여 그것에 성전의 무대를 마련하고 의식에 수반되는 음악과 시편의 대본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신성한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에 위치하게 되었고 신성한 인물들은 이제 아론과 레위 사람들의 집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신성한 인물에는 선지자와 함께 왕이 포함됩니다. 왕과 함께 예언도 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서 제사장들 외에 거룩한 왕과 왕에게 말할 선지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시편, 특히 시편 50편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천막이 왕궁으로 대체되어 오페라로 만들어진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성한 달력이 있었습니다. 즉, 매년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례적인 예배 행위가 있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절기와 성스러운 계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질적인 연례예배에 더해 전쟁이나 가뭄, 전염병이 닥치는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51절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는 일곱 가지 종류의 재앙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계절과 정상적인 주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매주 안식일인 안식일의 정상적인 주기일 수 있습니다. 욘 키푸르(Yom Kippur), 속죄일, 신년, 가을 축제, 비누 초막, 축하 초막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축제일, 세 축제, 유월절, 오순절, 가을의 세 축제 시즌의 일반적인 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희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만성적이고 규칙적이었지만 기근, 가뭄, 지진 등의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언제 성전에 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자가 사원 숭배에 정확히 어떻게 들어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현자는 성문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한 것은 지혜스승이 어떻게 성전예배에 들어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편 73편과 같은 지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신부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생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성전 예배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예배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성전 내부와 성전 외부로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전 내에서는 희생을 통한 용서를 포함하여 언약적 자비가 예배에 중재됩니다.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없이는 욱설입니다. 사실, 모독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프로, 이전, 파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앞, 성전 밖, 즉 더럽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는 거룩한 것이 있고, 성전 밖에는 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 단지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신성한 영역,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면은 영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무한하니,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성전에서 당신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한하지 않으면 일시적이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는 불완전함과 죄가 있습니다. 시편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성지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시편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시온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 보면 시온, 여호와의 집,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소, 시온에 거하시는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을 신성한 장소로 언급하는 참고 문헌 목록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일부 시편에 속하는 시편은 시온산의 선택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택하셨듯이 시온 산을 택하셨습니다. 이교 종교에서 신은 고유한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고유하게, 본질적으로 시온 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가운데 빠지고 물이 솟아 거품이 나고 산이 밀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하시는 성소를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녀 안에 계십니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그녀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은 소란에 빠지고 왕국은 무너진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구가 녹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땅을 황폐하게 만드신 것을 보라. 그분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는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부러뜨린다.

그는 방패를 불태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는 땅에서 높아지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온의 선택에 관한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다른 시편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5편과 같을 것이다.

살펴보고 싶다면 시편 15편이 다윗의 10계명입니다.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확장될 수 있지만 읽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장막에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궤를 위한 천막을 직접 지었습니다. 다윗의 저자라는

증거 중 하나는 그의 시편이 여기에 있는 장막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장막에 거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살게 하소서.

그런 다음 그는 세 가지 일반화와 세 가지 긍정적인 진술을 제시합니다. 흠 없이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며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위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혀는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험담도 없고 이웃에게 잘못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3개의 긍정적인 요소와 3개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즉, 당신이 존경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악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는 자라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존중하지만, 간음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여덟째, 맹세는 아파도 지키며 마음을 바꾸지 아니한다. 즉, 결혼 서약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약을 어긴 자들입니다. 물론 속죄가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서를 호소하고 간음을 버려야 하며,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다섯째는 심히 엄하여 가난한 자에게 이자 없이 꾸어주며 무죄한 자를 해하려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누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것은 나를 언약 구조가 있다는 것을 시작한 곳으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십계명의 표현인 다윗의 표현입니다.

10가지를 선택함으로써 다윗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생각하게 하고 그 계명을 다시 말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명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계명들을 일대일로 흉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언급하지만, 여기에서는 안식일이나 기타 등등에 관해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이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것의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만함이며 매우 광범위한 일반화입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즉 다윗의 10가지를 지키면 모세의 10가지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일을 한다면 10계명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서는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언급을 살펴본 후 이제 우리는 성스러운 계절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노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81편은 초승달에 낭송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침과 저녁 제사 때 많은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편 3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기도입니다.

시편 5편은 아침기도입니다. 시편 6편은 저녁기도입니다. 아마 이 시편들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와 관련하여 낭송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는 그가 레위 사람 중 몇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자를 삼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이고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 과

여히엘과 맛다다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벰에돔과 여이엘이니 수금과 수금을 타는 자라 아삽은 소리요, 심벌즈였습니다.

브나야와 제사장 여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으리라. 그 날 다윗은 먼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매일의 제사 때 정기적으로 불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행위에 관한 한, 신성한 제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언급하는 구절을 제공합니다.

예 를 들어 시편 96편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행하고 제물을 가지고 그의 뜰에 들어가라. 시편 107편,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할지어다. 제사를 드리며 예물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의 행사를 전할지어다

시편 116편은 감사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한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전 뜰에서, 네 가운데서 여호와께 한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신성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주어진 예언적 신탁도 있었습니다. 시편 50편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며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0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겠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있는 너희 제물이나 번제물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언약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성전에서 백성을 향해 주어진 예언적 신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성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는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적 신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상 속에 사는 행렬도 있었습니다. 시편 26편은 시편 기자가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여 손을 씻고 주의 제단으로 두루 다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모든 기이한 일을 큰 소리로 선포하리이다. 주님, 당신이 계시는 집,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 시편 68편에서 그는 행렬을 묘사합니다.

부족들이 어떻게 입장 하는지 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는 가수가 있고 그 뒤에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고를 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을 이끄는 작은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방백들의 큰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공주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들어가는 행렬을 거의 볼 수 있습니다, 부족들이 그들의 승배에 들어갑니다.

또 순례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순례할 때 불렀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승천시편은 아니지만, 여정과 성전 순례,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의 체험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로다 고라 자손의 것이로다. 나는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작곡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고라 사람들 에 의해 연주되었습니다 .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나이까 내 영혼이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심지어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새끼를 낳을 곳에 둥지를 틀 것이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가까이 있는 곳으로소이다. 물론 새들은 성전에서 죽이는 일이 없고 그곳에서 안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새가 주님의 성전에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보호와 안전이 있다는 그림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항상 당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힘을 얻고 순례길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 눈물이라는 뜻의 바카 계곡을 지날 때 그곳을 샘터로 만든다. 가을비도 웅덩이로 덮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은 생명의 샘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는 지금 성전에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왕. 오 하느님, 우리의 방패를 보십시오. 주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은혜롭게 바라보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순례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궁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노라.

주 하나님은 해이시며 방패이시니라.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베푸십니다. 그분께서는 흠 없이 행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순례 시편임을 알 수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승천의 노래 중 하나인 시편 122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님의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섰도다. 예루살렘은 촘촘하게 뭉쳐진 도시처럼 건설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파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 심판의 보좌 곧 다윗의 집의 보좌가 섰나이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당신의 성채 안에 안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나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은 순례, 희생 제물, 예언 활동 등의 신성한 행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전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을 별도로 다룰 가치가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 시편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외적인 표현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고 성전에 거할 때 시편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신성한 물건을 언급합니다.

시편 84편에 나오는 신성한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성한 잔이 있습니다. 감사찬송의 시편으로 구원의 잔을 드리리이다.

그들은 배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시편 20편에서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시편 21편에서는 왕이 돌아올 때 그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시편 20편에서는 우리가 너희의 승리를 인하여 기뻐 소리 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소서. 그러므로 각 지파는 그 깃발을 갖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승리를 나타내는 신성한 깃발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시편 150편에 제가 사용하는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절정이며, 오케스트라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주님을 찬양.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능 있는 하늘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권능 있는 행동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탁월한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솟양 뿔나팔을 불어 찬양하여라. 그런 다음 수금과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며 춤추며 그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피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심벌즈를 치며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과 울리는 제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신성한 물건과 신성한 행동, 신성한 장소와 신성한 달력만이 아니라 신성한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논평한 대로 성전은 실제로 하늘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는 뚜렷한 이분법이 없습니다.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떠나서 천국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비유한 신에 대한 비유는 귀가 있는 자가 어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 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는 신동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천국과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은유이고, 성전의 왕은 통시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은유이자 그림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인물에는 천사도 포함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천사들아, 그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그의 말씀의 소리에 순종하라. 주님의 모든 군대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봉사자들과 함께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거처로 가자. 가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자.

당신 의 안식처로 가소서 .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거기 레위인이 있느니라 레위 족속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것은 신권 너머로 확장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시편 2편에서 거룩한 왕이 되는 왕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44편에서 우리는 성전에서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신성한 인원의 일부입니다. 자, 이교도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왕의 대관식 예식을 다루는 특정 시편 한두 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 당신은 성전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은 단어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느낍니다.

바로 이거 야. 나는 신이 신처럼 만들어졌다는 신위형(MORPHIC), 몰픽(MORPHIC)을 묘사하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인 눈이나 육체적인 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당신은 천국이 어떻게 천국의 모형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성서에서 결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결혼으로 나아가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로서 말해야 합니다. 머리 직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고,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교리이다. 글썄,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는 앞서 건축에 관해 말씀하셨고, 기독교의 특정 계열이 건축과 예배가 무엇이며 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성당은 십자가 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물건은 교회 건물이 정사각형 상자이고 보기 흉한 기독교의 다른 계열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형태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저는 건물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촉각적이고 가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강단을 성경을 설교하는 강의대 위에 두어 강의대가 항상 성경 아래에 있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의 신학과 건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합창단을 앞쪽에 놓고 강단을 중앙에 놓으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드라마일 뿐이에요. 오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합창단이 있고 그들이 웃을 입으면 정말 재미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초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테이블을 중앙에 놓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설교자가 중앙이 아닌 옆에서 설교하는 일부 전통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종종 모든 것의 중심에 주의 만찬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말씀하실 때 저를 놀라게 한 전체적인 점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 우리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설명하는 것에는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 구약에서.

구약에서. 구약성서는 꽤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창의성은 없지만 신약성서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여러분에게 많은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첫 사역 중 하나는 1955년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중 하나는 루이지애나의 사우디 인디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그들에게 거의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과 세례만 지키면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 내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쪽에 모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이 그들이 자연스럽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한쪽에 있었고, 남자들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왼쪽에 흩어져 있는 편인데,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뒷줄 두 줄, 세 줄, 앞줄 두세 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형제 리즈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리즈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와 남자를 이해하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거나 교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뒷줄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0, 신성한 장소, 계절, 물건 및 인사입니다.